

우리가 희망을 갖는 이유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특별한 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현실과 무관한 역사적 인물로 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로마 성십자 가대학(Pontifical University of the Holy Cross)의 교수 루이스 클라벨(Luis Clavell) 박사가 이에 대해 논한다.

2008-8-27

그의 비범한 교황직 내내, 요한 바오로 2세는 오랜 세속화의 결과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된 나라들과 사회 영역들을 복음화 하는 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다.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거의 들어본 적조차 없고, 또 동시에 대중 문화가 그들에게 제시하는 세속적 목표들로 인해 불만을 느끼고 있다. 다른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언가 듣고 읽은 적은 있지만 단지 그에 대한 피상적이고 부정확한 개념만 갖고 있을 뿐이다. 그리하여 우리 시대의 특별한 과제는 그리스도의 새로움을, 그를 그저 지나간 시대의 인물로 보는 이들에게 펼쳐 보이는 데에 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이 과제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우리

는 그의 강론, 연설, 저술에서 그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친교를 시작하게 할 수 있을지를 찾고 있는지 분명하게 볼 수 있다. 그의 말에 쓰리는 관심이 증가하고 그의 말을 듣기 위해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이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믿는이와 믿지않는이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교황의 이러한 노력에 응답하고 있다. 또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의 줄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모습은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하느님에 대한 뿌리뽑을 수 없는 열망을 드러냄과 동시에, 새로운 복음화의 요청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표명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오순절에 진리의 성령이 마리아와 사도들에게 불로 된 혀의 형상으로 내

려오셨다. 사도들이 말하였을 때, 예루살렘에 모여 든 수천의 순례자들은 그 말을 자신들의 언어로 이해하였다. 그때와 같이 오늘도 협조자이신 성령께서는 상황과 사람에 따라 그에 적합한 주장과 언어를 사용하도록 우리를 독려하신다. 현 시대의 문화, 정치, 미디어는 우리가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고, 호소력 있는 생각을 제시하며, 문제들에 대한 긍정적인 해답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성 베드로가 그의 첫째 서간에서 권고하듯, 우리는 침착하고 공손하게, 그리고 유쾌하게 말하면서도 남들이 이해할 수 있는 확고한 이유를 대어야 한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히 모십시오. 여러분이 지난 희망에 관하여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해 두십시오. 그러나 바른 양심을 가지고 온유하고 공손하게 대답하십시오.”[1]

교회의 시작에서처럼 지금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얼굴을

더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보다 깊은 친교를 이루는 것만이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희망에 찬 기쁜 소식이 가져다 주는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그들이 삶에서 발견하는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은 바로 이 기쁜 소식이다. 베네딕토 16세는 이성을 강화할 필요성과 그리스도교가 일찍이 그리스의 철학 전통과 만난 사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의 첫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시다(Deus Caritas Est)”는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그리스도교의 핵심에서 이성과 신앙을 화해시키고자 하는 그의 바람을 보여주는 예이다. “신앙은 그 특유한 본성에서 살아계신 하느님과의 만남입니다— 이성의 세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 젖히는 만남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이성 자체를 정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하느님의 입장에서 보면, 신앙은 이성을 그것의 맹점들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리하여 이성이 보

다 더 충만하게 되도록 돕습니다. 신앙은 이성을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하며 그것의 고유한 대상을 더 분명히 볼 수 있게 합니다.”[2]

신앙은 이성의 동지요, 인간의 지성을 비추는 초월적이고 강력한 광선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베네딕토 16세는 또한 여러 종교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이성이 수행하는 역할을 지적한다. 이성은 초월과 진리의 추구에로 열려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스도교의 입장에서) 다른 종교 외의 대화를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게다가 이성은 종교가 미신으로 타락하는 것을 막는 주된 도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성은 신학자의 작업의 핵심에 속하는 동시에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황은 엠마누엘 2세 팔레올로구스(Emmanuel II Paleologus)의 말을 인용한다. “이성과의 조화 안에서 행동하지 않는 것

은 하느님의 본성에 반하는 것입니다.”[3] 이성은 그리스도교의 계시의 빛 안에서 한층 더 폭넓은 역할을 맡게 된다. 그리스도교는 태초에 말씀—로고스(Logos)—이 있었다고 가르친다.[4] 이성은 물질적 현실에 제한되지 않는다. 이성이 진리에 열려 있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깊은 의문들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성은 우리가 신앙을 사는 방식을 정화시킬 수도 있다.[5] 신앙과 이성은 “인간 정신이 진리를 보기 위해 날아오르는 두 날개와 같다”.[6]

이성의 지평을 넓히는 것: 대학들의 숙제

이성과 신앙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있어 그리스도인은 모든 다양한 지식의 영역을 고려해야 한다. 현대 과학은 전문화로 특징지어 지는데, 이것은 지난 백 년간 극적인 과학적 진보를 불러왔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종종 그들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과

학자의 탐구방식으로는 해답을 줄 수 없는 문제들을 제기하게 된다. 이리하여 다양한 지식 분과의 전문가들간의 협력이 요청되고, 이렇게 그들의 통찰을 한데 모음으로써 새로운 종합(synthesis)에 이를 수 있게 된다. 신앙과 이성의 새로운 조화를 모색하는 과업은 특히 대학들에게 있다. 대학은 “서로 다른 학문들의 조화 속에서, 항상 새로운 연구 분야가 신앙과 이성이 자극적으로 대립하는 가운데 발전되는 거대한 실험실이어야 한다... 흥미로운 모험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의미의 지평 안에서 지식의 상이한 분야—신학, 철학, 의학, 경제학을 비롯한 모든 학문, 심지어 가장 전문화된 기술들조차도—를 연결하는 내재적 일체성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7] 대학은 그 모든 다양한 학문들을 모아 들여 인격의 성장과 창조주의 계획 사이의 관계를 드러내는 종합을 만들어 낸다. 연구는—사람이 하는 다른 정직한 일들과 마찬가지로—이

세상에서의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한다. 동시에 그것은 각 세대의 미래에 대한 책임을 보여준다.

베네딕토 16세는 문화적 종합을 위한 이 위대한 모험을 불러 일으키는 길을 제시한다. “현대의 과학적 이성은 간단히 말해서 물질의 합리적 구조와 더불어 그것의 방법론이 기초해야 할 주어진 것으로서의 자연이 가진 우세한 합리적 구조와 우리의 정신 사이의 상호반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 그래야만 하는가라는 문제는 진짜 문제로서, 자연과학이 철학과 신학이라는 사고(思考)의 다른 형태와 측면으로 돌려 보내야 하는 문제입니다.”[8] 그러므로 지식의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연구결과에 빛을 비추어 주고 그것들을 일치시키는 지식의 더 높은 영역으로 열려있어야 한다. 세계는 사람의 마음이 이러한 일치를 파악할 때에 이해가능해진다. 다만 이를 위해 우리의 마음은 우리 존재의 궁극

적 의미를 계시하는 초월적 경지에로
열려있어야 한다. 동시에, 이성의 이러한 보편적 개방성은 신학자와 철학자가 자신들을 지식의 다른 분야들과 과학으로부터 떼어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철학은, 특히 형이상학은, 다른 학문들로부터 얻은 지식을 활용한다. 그것들의 전제를 검토하여 그것들을 명확히 하고 정당화 한다. 신학과 철학을 통해 얻은 지식이 근본적인 의문들을 연구하는 데 적합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유형의 지식을 잉여의 것으로 만들지는 않는다.[9] 게다가 이성의 개방성은 철학과 신학이 대단한 종교적 체험들 뿐만 아니라 인간 삶의 다른 차원들에 대해 고찰할 것을 요구한다. “문화들 간의 대화에서 우리는 우리의 동반자들을 바로 이 위대한 로고스로, 이 폭넓은 이성으로 초대합니다. 이를 부단히 재발견하는 것은 대학의 커다란 과제입니다.”[10]

생활의 일치에 기초한 종합적 인격

신앙과 이성의 연결은 대학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요한 바오로 2세와 베네딕토 16세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보다 더 잘 표현하라는 하느님 섭리의 요청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청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인격적 형성을 가다듬고 우리의 신앙이 일상 생활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비추고 있는지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이 진정 '가톨릭'한 것이 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 받고 있다. 성 호세마리아의 말을 빌면, 진정으로 그리스도적인 마음은 "정통 가톨릭에서 변하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것들에 대한 폭넓은 시각과 깊은 통찰력, 철학과 역사의 해석에서 전통적 사상의 표준적 가르침을 새롭게 제시하고자 하는, 결코 무분별해서는 안 되는 적절하고 건강한 열망, 현대의 사상과 과학의 경향에 대한 주의 깊은 인식, 그리고 현대 사회와 삶의 방식의 변화에 대

한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11]

모든 사람이 문화적 형성을 심화시킬 기회를 동등하게 갖는 것이 아니고, 또 같은 능력과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은 각자에게 다르게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현 시대의 문제들을 더 잘 이해하고 그것들을 해결하는 데에 보다 더 결정적인 기여를 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숙고하도록 자극할 것이다. 우리 신앙의 이성적 차원에 관한 확고한 이해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학적 훈육의 기본적 부분이며, 성 호세마리아가 현대의 사도들에게 가지기를 바랐던 "혀의 은총"의 중요한 부분임이 분명하다.[12] 양질의 독서는 여기서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것은 우리의 인격적 형성의 지평을 넓혀 주는 좋은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독서는 논리적인 주장, 유용한 정보, 효과적인 표현들

을 접하게 해 주고, 감정과 정서를 지도한다. 침착하고 주의깊은 독서는 새로운 과업을 구상하게 하고, 미디어를 통해 접하게 되는 종종 파편적인 정보들에 대해 보다 진실에 가깝게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 준다. 하지만 한 사람의 생활형태가 그가 진지한 지적 내용물이나 수준높은 문학을 읽는 것을 방해하게 될 수 있다. 일의 강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 시청이나 현실도피적 내용의 소설을 읽는 등 순전히 수동적 유형의 휴식을 추구한다. 미래 세대에 관해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사회일반의 문화·교양 수준은 그가 자라난 환경에 크게 의존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이성을 복권시키고 신앙과 조화시키기 위해, 한 사람이 최초로 받게 되는 양육과 교육이 선(善)의 아름다움과 덕있는 행동, 잘 마무리된 작업의 가치를 알아보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은 핵심적이다. 젊은이들이 일찍부터 독서의 취미를 갖고 하느님의 로고스에의 참여

인 그들의 지성을 충만하게 발전시키느냐 마느냐는 부모와 교사, 그리고 친구들에게 달려있다. 보편적 마음가짐의 또 다른 요소는 동시대의 사상 조류에 대한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태도이다.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그들 고민의 해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제와 그들이 제안하는 해결책—설령 그것이 아무리 잘못된 것으로 보일지라도—에 진정한 관심을 보여주어야 한다. 참으로 가톨릭적이고 보편적인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비웃음 없이 존중하는 태도로 분석하고 토의하며,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것의 긍정적인 면을 발견할 줄 안다. 반대의 주장을 침착하게 살피는 것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만들어내어 자신의 생각을 보다 진지하게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이것은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종종 사용하는 추론 방식이다. 이 첫째 단계를 생략하는 것은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내면화하지는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제안하는 해결책이 그들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다고, 아마도 정당하게, 판단하게 할지도 모른다. 오직 권위에만 근거한 주장은 거의 무게감을 갖지 못하며 실제로 대부분의 영역에서 불충분하다. 대조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장을 파고 들어가는 것은 적절한 순간에 잘 근거된 반대의견을 함으로써 그 주장의 한계점들을 드러낼 수 있게 한다.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다른 사람에 대한 참된 “탈이해적(脫利害的) 관심(disinterested interest)” 없이는 우리는 결코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오직 사랑만이 특수하고 개인적인 것을 진정으로 이해한다.

공적 생활에서의 이성과 신앙의 조화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다른 이들을 진리로 이끌기 위해 이성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직업적·공적 영역에서

하느님에 대해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게 되고 사도직을 가족과 친구라는 사적 영역 밖으로 확장하게 될 것이다. 현대의 문화는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 이익을 주제로 하는 공적 토론에 참여하여, 그들이 믿는 바를 지지함으로써 삶의 일치를 보여줄 것을 필요로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로운 의견교환에 기여하는 정중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참으로 차분하고 이성적인 토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몇몇 장소에서 사람들은 인간 존재의 어떠한 초월적 개념도 미리 깎아내 버리는 일종의 상대주의에 기초하여 정치적 토론을 진행하려 한다. 이러한 태도는 종종 관용이라는 관념과 연결되는데, 이는 마치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문제와 필요를 이해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거나, 심지어 믿는 이들은 대화에서 항상 어떤 순전히 주관적인 신념을, 아마도 무의식적으로, 강요하려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상대주의는 진보를

위한 조건도 아니요, 자유에 대한 보다 큰 존중의 결과도 아니다. 이는 역사를 재빨리 훑어만 봐도 분명히 알 수 있다. 역사는 인간 존엄성의 깨달음, 이성에 대한 신뢰, 자유로운 공존과 상호작용의 가치에 그리스도교가 결정적으로 공헌하였음을 보여준다.

신앙은 진보를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조금도 그 힘을 잃지 않았다. 그러므로 종교를 사적 영역으로 떨어뜨리려는 어떤 사회와 맞닥뜨렸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믿음을 숨기려는 유혹과 좌절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것은 미지근함과 안락추구의 징표요, 궁극적으로는 이성과 신앙의 깊은 관계를 파악하지 못함의 징표이다. 정치적 대화는 공동선을 구축하려는 노력들의 결합을 요구한다. 그것은 사회의 문제를 위한 각자의 솔선수범과 제안, 해결책을 요청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회의 사회교리는 “역사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의 계획이 정한 기준에 따른 휴머니즘, 모든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경제·정치적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온전하고 연대적인 휴머니즘”을 제시한다.[13]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상대주의에 맞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인간 개념을 포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신념에 충실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하여 공동선을 위한 우리들의 개인적인 기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교회는 신앙을 공유하지 않는 이들에게 그것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도 교회가 인간을 이해하는 진리를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알고 있다. 교회가 시민적·정치적 생활에 기여하는 한 가지 길은 합리적 주장들을 제출하는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 혹은 교회적 공동체가 유보를 표시하거나 여러 원칙들을 상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공적 토론에 개입할 때 이 것을 어떤 불관용이나 간섭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개입은 오직 양심에 빛을 비

추어 정의의 참된 요구에 따라 자유롭고 책임있게 행동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14]

통상적으로 공적인 토론에 개입하는 것은 교회의 공식 기관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평신도 각자에게 “그의 양심에 비추어 가장 적절하고 가장 자신의 개인적 신념과 성향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구체적·이론적·실천적 결정을 하도록 맡겨져 있다. 예를 들어, 상이한 철학적·정치적 견해, 예술적·문화적 경향, 또는 직장과 사회생활에서의 문제와 관련한 결정들 말이다”.[15]

각각의 사람은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어떻게 그가 보다 정의로운—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사회질서를 만드는 데에 협력할 수 있는지 책임있게 숙고해 보아야 한다. 정치인들이 보다 더 직접적으로 공동선 확대에 관한 책임이 있다고 하여도, 이 일은 그들에게만 배타적

으로 맡겨진 것이 아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사회의 발전을 진척시키는 데 협력해야 한다. 이러한 협력의 몇 가지 형태를 말하자면, 자신의 직업에서 정의의 모범이 되는 것, 문화적·사회적 사업에 도움을 주는 것, 미디어에 관여하는 것, 직업조합이나 회의체에 참가하는 것 등이다. 여기에는 많은 가능성들이 있다. 그리고 각자는 여기에 기여할 저마다의 방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경우에, 분명히 해야 할 것은—우리가 상대하는 특별한 청중을 고려하여—예수 그리스도께 문의하지 않고는 논의 중인 사태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교적 관점 안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때로는 정식화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알게 해야 한다. 이 새로운 복음화를 통해 그리스도인은 그들 세례의 은총이 열매 맺게 한다. 그리스도의 왕직, 사제직, 예언자직을 그들이 함께 갖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주님께 의탁한다. 가장 잘 아시는 하느님께서 포도밭에서 일하도록 파견하신 각각의 믿는이들은 요한 바오로 2세의 말을 들으며 새로운 힘을 받는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 가는 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분의 구원 권능에 국가, 정치구조, 경제체제를 여십시오. 그분의 권능에 문화, 문명, 발전의 모든 방대한 장(場)을 여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아십니다!”[16]

루이스 클라벨, 성십자가대학

주(註)

1. 1베드3:15-16.

2. 베네딕토 16세,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시다(Deus Caritas Est)”, 28.

3. 베네딕토 16세, 레겐스부르크
(Regensburg)대학 강연, 2006. 9. 12.
4. 요한1:1 참조.
5. 베네딕토 16세, 레겐스부르크대학
강연, 2006. 9. 12. 참조.
6.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신앙과 이
성(Fides et Ratio)”, 머리말.
7. 베네딕토 16세, 성심가톨릭대학
(Catholic University of the Sacred
Heart) 연설, 2005. 11. 25.
8. 베네딕토 16세, 레겐스부르크대학
강연, 2006. 9. 12.
9. 성 토마스 아퀴나스, “보에티우스
의 삼위일체론에 대하여(Super
Boethium De Trinitate)”, III, q. 5, a.
1, ad 6 참조.
10. 베네딕토 16세, 레겐스부르크대
학 강연, 2006. 9. 12.

11. “밭고랑”, 428.
 12. “밭고랑”, 430과 899 참조.
 13. 교황청정의평화위원회, “간추린 사회교리”, 19.
 14. 베네딕토 16세, 유럽인민당 당원들에게 한 연설, 2006. 3. 30.
 15. “몬시뇰 에스크리바 데 발라게르 (Msgr. Escrivá de Balaguer)와의 대화”, 12.
 16. 요한 바오로 2세, 강론, 1978. 10. 22. 사도적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 (Christifideles Laici)”, 34에서 인용.
-